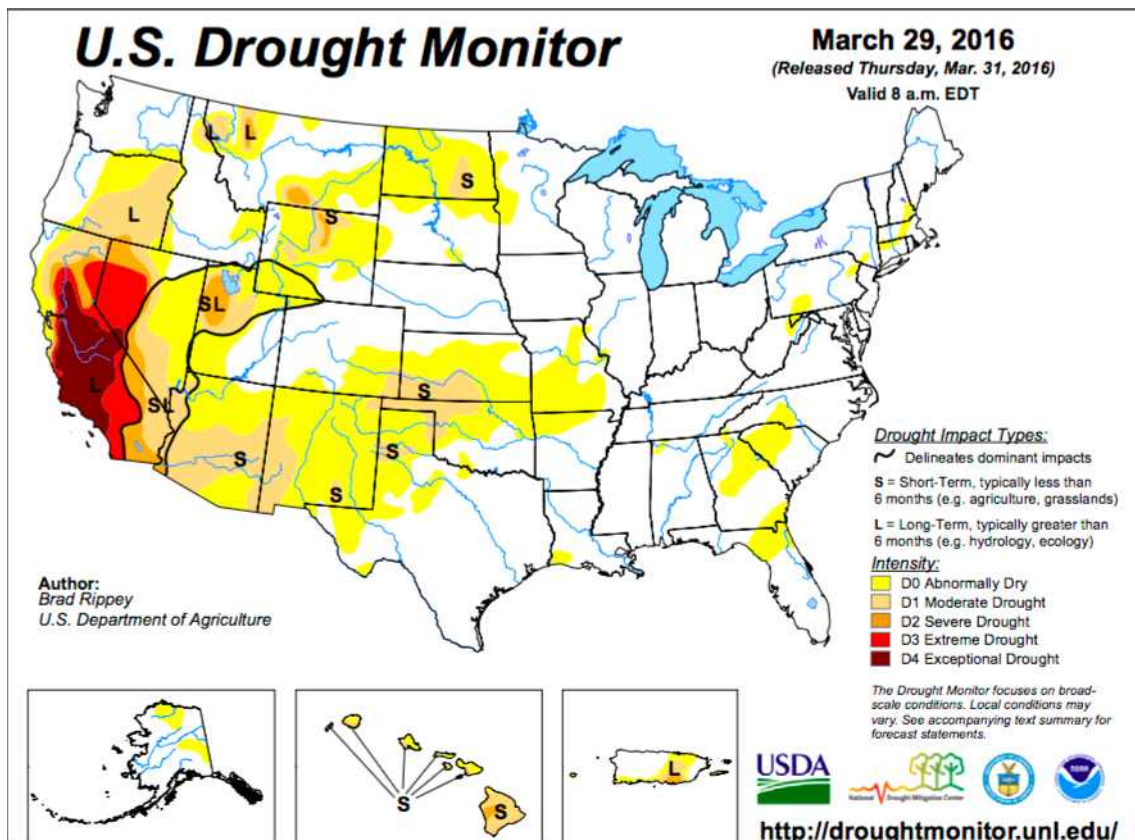


4월 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14)

□ 미국 기후 현황(3/27~4/2)

중부와 남부 등에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와 뉴멕시코 남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캔자스 북부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지난 주 중반 낮 기온이 80°F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3월 27일과 4월 1, 2일 등에는 텍사스 북부 등 남부 일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 서부 내륙 산간지역의 북부 일대는 갑작스런 기온 하락과 폭풍우가 몰아쳐 3월 말에 1~3인치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폭풍우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물리나면서 오대호 일대에 다시 비를 뿌렸다. 남동부에서는 주 후반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와 달리 애팔래치아 산맥 중부 일대와 대서양 연안의 가운데 위치한 주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에서는 주 후반 비가 오기 전까지 평년에 비해 10°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평균 기온이 갑자기 낮아졌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 농업 현황 요약(3/28~4/3)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농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북부 대평원, 오하이오, 대서양 연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주 대부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6°F 이상 높았다. 남동부와 Delta 일대에서는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남서부 전역은 맑은 날이 이어졌다.

□ 세계 기후 현황(3/27~4/2)

■ 유럽: 대륙 전역에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비가 적절히 내려 겨울작물의 생육 조건은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평균기온을 보였던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대 4°C 이상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고, 독일과 폴란드에서도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 덕분에 작물들이 휴면에서 벗어나 생장을 재개했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지난 3월 마지막 날 일시적인 추위 이후 기온이 평년에 비해 3~6°C 정도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프랑스와 영국 일대에서는 25~6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일부 지역, 발칸반도 일대 국가에서도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진 가운데 지역에 따라 5~6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3월의 마지막 날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 중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2~6°C 정도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씨를 회복하면서 작물들의 생육이 재개되었다. 2~35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토양 수분도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Volga 지역에서는 주 후반 눈이 내리기도 했다(강수량 환산 10~50mm 내외). 이들 지역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차가운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기온이 내려갔는데, 동해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추위는 찾아오지 않았다.

■ 동아시아: 양쯔강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주 후반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지난 3월 초 내린 비 이후 처음 내리는 비였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평년에 비해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가운 단비가 되었다. 남부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중국 북부 평원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5~6°C 정도 기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봄철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의 밀 생육 상황은 지난 해 이례적으로 작황이 좋았던 상황보다 나쁜 편이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주 중반 2~1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매우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수확 등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온은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아,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에서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북부 일대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주변 지역도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일부지역에서 옥수수과 대두 등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여름작물의 생육 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도 회복하면서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졌다. 보다 북부의 Santiago del Estero, Salta 동부, Chaco, Formosa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중부와 마찬가지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3월 29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91%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중부와 북부 일대는 비가 내렸다. 그러나 Bahia 서부와 Tocantins 인근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Mato Grosso, Goias 등에서도 2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 이례적인 가뭄 현상으로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 전망이 다소 어두워졌다. 남부의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남부, Rio Grande do Sul 남부 등에서도 25mm 내외의 적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남부 일대에서는 지난 주 내린 비로 평년 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있다. Mato Grosso, Tocantins 등의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1~3°C 정도 기온이 높고,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